

자연의 아름다움 화폭에 담다

박은숙 작가 '내 마음의 풍금소리'
나이프로 물감 쌓아올려 질감 표현
24점 선배...24일까지 자미갤러리



박은숙 작가가 자미갤러리에서 열고 있는 개인전 '내 마음의 풍금소리' 전시작품 중 하나인 '위용' 앞에서 포즈를 취했다.

“시골에서 생활하며 보았던 풍경들은 예술작업에 중요 영감이 됐죠. 전업 작가라면 붓을 내려놓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매년 개인전을 열고 있습니다.”

자미갤러리에서 6번째 개인전 '내 마음의 풍금소리'를 연 박은숙 작가(53)는 전국 곳곳의 아름다운 풍경을 캔버스에 사실적으로 담아내고 있다. 이번 전시에서는 지난 2018년부터 최근까지 박 작가가 작업한 회화 작품 24점을 만나 볼 수 있다.

박 작가는 지난 2020년 5월 금호 갤러리에서 선보인 첫 번째 개인전 '봄-자연 속으로 한 걸음 더'를 시작으로 매년 1~2회 전시를 열고 있다. 늘 새로운 작품을 창작하는 것이 작가의 본연의 임무라는 가치관 때문이다.

박 작가는 “전업 작가라면 최소한 개인전의 3분의 1은 새로운 작품으로 채워야 한다고 생각해 개인전을 열 때마다 새로운 작품을 작게나마 공개하고 있다”며 “작가로서 나태해지기 싫어서 매년 개인전을 열고 있다. 비록 준비과정이 긴장의 연속이지만 그러한 긴장감은 작가에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작가는 전국 곳곳에서 피어나는 꽃과 아름다운 풍경을 담아왔다. 이번 전시에서 색다른 점은 새로운 시도로 화풍에 변화를 준 작품을 살필 수 있다는 점이다. 기존에는 꽃과 호수 등이 풍경을 선보였다면 풍경과 어우러진 인물이 등장하거나 소나무 등의 작품을 만나 볼 수

있다. 파도 위에서 있는 여성의 모습이 담긴 작품 '바닷가에서'와 창가에 비친 아이를 바라보고 있는 여성을 통해 옛 추억에 빠져들게 하는 '회상', 섬진강변을 지키고 서 있는 소나무 '위용'이 대표적이다. 나이프로 물감을 쌓아 올려 구현한 소나무와 돌의 질감이 입체적으로 다가온다.

박 작가는 14번째 그림을 그리고 있다. 그중 전업 작가 활동은 6년에 불과하다. 미술대학에서 미술학을 전공하지도 않았다. 일반 작가들보다도 작품활동을 늦게 시작했지만 그렇다고 깊이가 가볍지 않다. 문화센터에서 배운 그림을 바탕으로 각종 공모전에 작품을 출품해 특선부터 입선까지 휩쓸며 자신만의 영역을 만들어갔다. 이는 어린 시절부터 수십 년간 풀어왔던 화가의 꿈 덕분이다.

박 작가는 “부모님의 반대로 미술대학 입시를 포기했다”며 “사회생활을 하면서도 화가의 꿈을 버리지 못해 마흔이 되고 나서야 취미로

시작한 그림이 계기가 돼 전업 작가의 꿈을 이루게 됐다”고 설명했다.

박 작가는 발전에 목말라 있다. 전국 곳곳의 풍경을 카메라에 담아 좀 더 나은 작품을 선보이기 위해 변화를 시도하고자 한다. 화풍에 대한 접근법은 미묘하게 변화하지만, 자연의 아름다움을 담고자 하는 생각은 한결같다.

박 작가는 “유년 시절 아름다운 풍광으로 느꼈던 공간에 리조트가 들어서거나 개발돼 아름다움이 사라지는 것이 아쉬워 그림으로 많이 담고자 한다”면서 “관람객도 제 작품 속 자연 풍경을 통해 정서적 안정감을 찾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 “완전 묘사주의에서 벗어나 반추상을 시도해보고 싶다”면서 “현재 소나무를 주제로 한 작업을 이어가고 있다. 내년 개인전에서는 소나무를 연작으로 한 작품을 선보이고 싶다”고 덧붙였다.

전시는 24일까지. /이나라 기자

국악무대 공연 영상 제작지원

31일까지 이메일 접수

국악방송은 공연을 앞둔 전통 예술인들의 공연실황 4편을 선정해 '국악무대' 영상으로 제작할 예정이라고 15일 밝혔다.

'국악무대'는 시청자에게 우수한 국악 공연의 실황 녹화 및 생중계로 고품질 고품격 영상을 통한 현장의 감동을 전하는 국악방송의 대표 프로그램 중 하나다. 국악 공연의 순간을 영원으로 남길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제공하고

공연 실황을 중계할 수 있다.

국악무대 공모는 다양한 공연 영상 제작을 지원할 계획이다. 1·2차에 걸쳐 참여의 기회를 넓혔다. 공모를 통해 선정된 전통 예술인(개인·단체)의 공연을 전문 제작진이 참여해 공연 영상 제작을 지원한다.

공모 기간은 오는 31일 오후 6시까지 이메일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참가 자격은 전통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개인 및 단체 전통 예술인이면 누구나 지원 가능하다. /이나라 기자

국립광주과학관 메타버스 운영

국립광주과학관이 15일 국립광주과학관 메타버스 운영을 시작했다.

국립광주과학관 메타버스는 과학관의 주요 시설과 건물을 실제와 유사하게 구축한 온라인 공간으로 쌍방향 실시간 소통과 교육프로그램 운영이 가능하다.

4월부터 메타버스 활용 교육 'Let's start! AI 엔지니어' 프로그램을 시작으로 천문·캠프

프로그램, CSI과학수사대 등 다양한 과학교실을 순차적으로 개설해 다양한 볼거리와 함께 온라인 교육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국립광주과학관 메타버스는 누구나 입장해 관람 및 교육 참여가 가능하다.

자세한 내용은 국립광주과학관 홈페이지(www.sciencecenter.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나라 기자



땅콩나무문화예술협회 첫 번째 회원전 '땅콩나무캘리그래피 씨앗전'이 갤러리 앞에서 열리고 있다.

'괜찮은 어른' 되고 싶었던 땅콩나무 씨앗전

땅콩나무캘리그래피 회원전

70여점...20일까지 갤러리 함

캘리그래피를 연구하고 학습하는 땅콩나무문화예술협회 첫 번째 회원전인 '땅콩나무캘리그래피 씨앗전'이 갤러리 함에서 열리고 있다.

'이미 그대로 괜찮으니까'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전시에는 18명의 회원이 쓴 손 글씨 70여 점을 만나 볼 수 있다.

회원들은 '괜찮은 어른'이 되고 싶어 고민했던 경험과 위로를 아름다운 서체로 작품화해 서

툰 어른에게 보내는 응원의 메시지를 담았다.

땅콩나무캘리그래피는 2017년 광주문화재단의 중장년 문화예술프로그램에 선정되면서 결성됐다. 캘리그래피 작가이자 디자이너, 강사로 활동하고 있는 양중희 작가가 대표를 맡고 있다.

40여명의 회원은 재능기부 활동과 전시회 개최 등 캘리그래피 활성화와 대중화를 위해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한편 전시 기간인 17~18일은 무료 글씨 나눔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18일 오후 2시에는 양중희 대표의 퍼포먼스 행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전시는 20일까지. /이나라 기자

광주시립창극단 판소리 감상회

26일 국립광주박물관 대강당

2023년 광주시립창극단 특별공연 '판소리 감상회' 두 번째 무대가 26일 오후 3시 국립광주박물관 대강당에서 펼쳐진다.

이번 공연에는 양은주 명창의 소리와 김규형 명고의 북장단에 맞춘 창작 판소리 '열사가' 무대다. 창작 판소리 '열사가'는 1945년 조국을 되찾기 위해 목숨을 아끼지 않았던 항일운동의 상징적인 영웅 이준과 안중근, 그리고 윤봉길

열사의 이야기를 담아낸다.

일제의 부당한 식민지배에 대한 강력한 항의의 의미를 담아내고 있으며 항일에 대한 영웅적 삶의 한 국면을 형상화한다. 창작 판소리 '열사가'를 통해 세 열사의 이야기를 하나의 줄거리로 감상할 수 있다.

'판소리 감상회'는 전체 관람가로 윤중강 국악평론가의 해설과 함께 진행되며 광주문화예술회관과 티켓링크에서 전시 무료로 예매할 수 있다.



광주시립창극단 '판소리 감상회' 무대

'판소리 감상회'는 국립광주박물관에서 오는 11월까지 이어진다. /이나라 기자





인연이 있다 결혼으로 있다

딱 맞는 인연을 만나고 싶을때 "여보야"



빅데이터와 최신 AI로 배우자 찾기



프리미엄 결혼 플랫폼 여보야 노블레스



결혼부터 출산까지 여보야가 적극 지원해드립니다

"여보야"는 새롭고 합리적인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새로운 결혼문화를 창조하기위해 제작된 결혼 전문 플랫폼입니다.

가장 합리적인 결혼중개 서비스, 여보야

- ✓ 국내 결혼중개 서비스 중 **최저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 남성회원은 **2~3만원** 정도의 비용으로도 성혼이 가능합니다.
- ✓ 여성회원은 **무료**로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고객센터 1522-3379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대로 773 세정아울렛 4층

이제 "여보야"에서 인연을 만나보세요

다운로드하기   